

사천N

SACHEON MAGAZINE

2023.11 vol. 331



하늘과 바다로 사천으로
Sacheon



곤양천 두방길

진삼선 굴다리 밑 우리 집

권정

진삼선 철길 굴다리 밑 우리 집

우리 집 지붕 위로
하루에 두 번 기차가 달리던 때가 있었다

겨울과 봄을 달고 달려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연탄가게 집 아저씨의 달디 단 꿈을 데리고
송송 구멍 뚫린 대문을 흔들며
하루에 두 번 기차는 달렸다

어디서 날아와 피었을까
코스모스가 작은 손을 흔들며
어깨 낮춘 철길을 따라
기차길에 피었다 지고

연탄불 피운 부엌에서
모락모락 저녁밥은 뜸이 들어

아, 하고 누군가 불러 보고픈
그 때 그 시절처럼,

하루에 두 번쯤은
다시 기차가 달렸으면 좋겠다.

권정

경남 사천출생
2023년 『청옥문학』 신인상
(전)박재삼문학선양회 회장
사천 정우차회 회장



CONTENTS

11

2023 November
Vol.331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
Sacheon

발행일 2023년 11월
발행인 사천시장
발행처 사천시청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대표전화 055)831-2216
편집·인쇄 (주)경남일보

무료구독
사천시 공보감사담당관 공보팀
☎055)831-2216 @shgongbo@korea.kr

사람을 모으다

- 04 표지 이야기 - 곤양천 독방길
- 08 사천의 핫플레이스 - 각산 편백나무숲, 다솔사 명상숲,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
- 사천읍성 축제 대표축제로 등극할까!
- 12 이달의 인물 - 청소년복지재단 박재령 대표이사
- 16 사천의 자랑 - 여섯 살 된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위상 드높인 사천시평생학습센터
- 민주평통 신현호 사천시협의회회장 임명
- 구 다솔사역 유희부지, 문화체육공원으로
- 2023 사천에어쇼

정보를 모으다

- 26 지금, 우리 학교는 - 곤명중학교
- 30 시정소식 - 지금, 사천N
- 32 의회소식 - 지금, 의회N
- 34 유익한 사천 - 생활정보
- 희망이들

문화를 모으다

- 37 생생 사천 - 겨울을 준비하는 딱새
- 38 역사 속 사천 - 은사동 도원곡비
- 40 내결에 사천 - 신수도
- 42 길과 함께 - 길따라 사천이야기 - 통양1길 ~ 3길
- 43 사천 학당 - 사천 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명구명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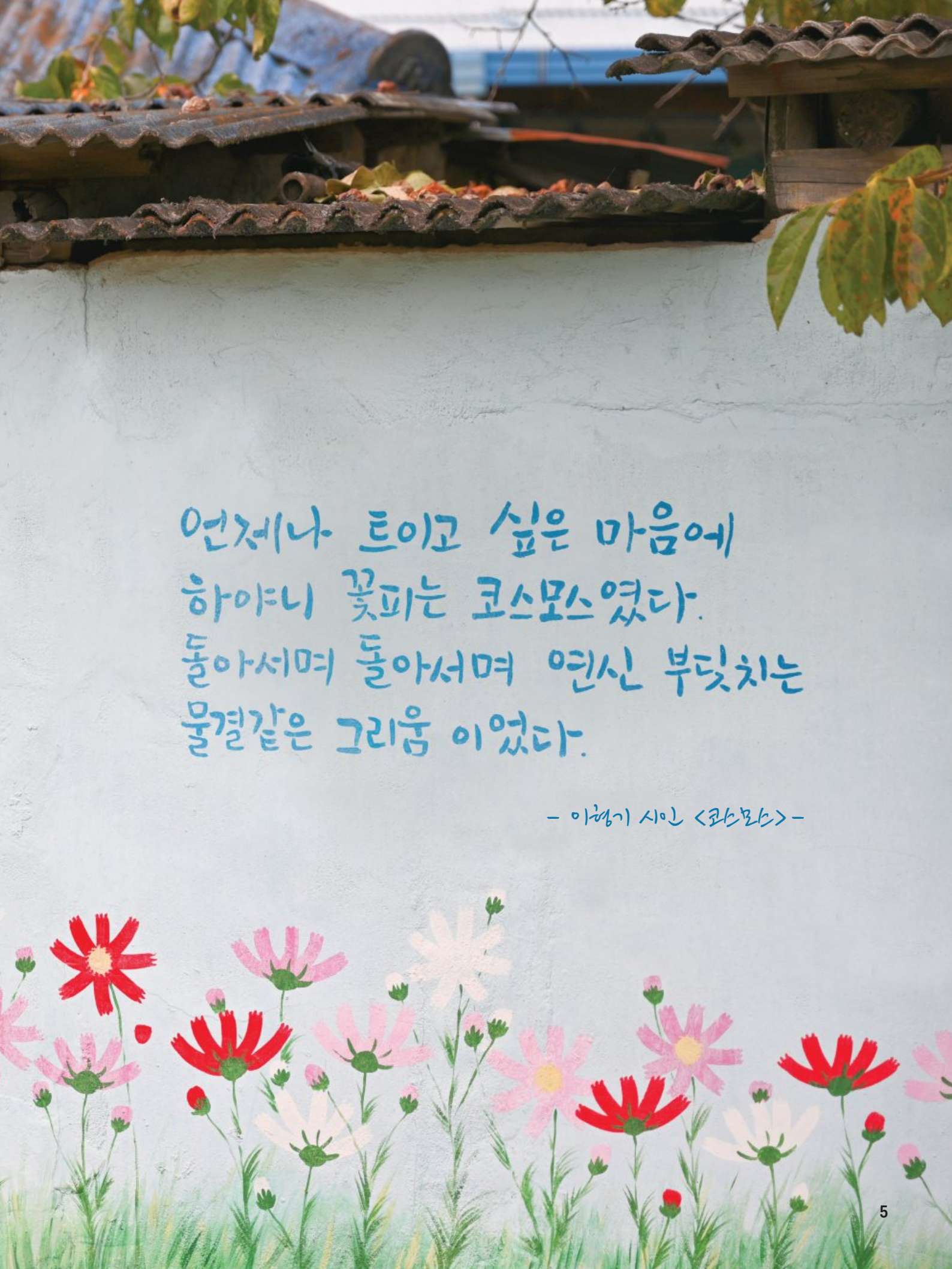
황금빛 들녘과 조화로운 곤양천

코스모스 꽃길



황금빛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고
코스모스가 바람 따라 살랑 거린다.
시인의 고향답게 깊은 정취가 풍기는데,
아아- 올 가을엔 곤양천 흐르는 솔골마을로 가자.





언제나 트이고 싶은 마음에
하야니 꽃피는 코스모스였다.
돌아서며 돌아서며 연신 부딪치는
물결같은 그리움 이었다.

- 이영기 시인 <코스모스> -

코스모스 활짝 핀 힐링 명소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바람을 따라 곤양면 솔골 마을로 가보자. 마을을 둘러 흐르는 곤양천 냇물 소리가 들린다. 곤양천 독방길은 한적한 시골 향기가 물씬 나는 힐링 명소이다. 이곳에는 가을의 전령 코스모스가 줄지어 피어 있다. 금용교부터 상정1교까지 4.5km 가량 이어져 있어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때맞춰 코스모스 핀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까닭은 곤양면 주민들이 매년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마음이 느껴진다. 코스모스를 즐기며 길을 걷다 보면 비봉터널, 솔골터널 등 조롱박이 대롱대롱 매달린 터널이 있다. 적재적소에 위치해 있어 별을 피하기에 좋다. 벼가 익어가는 황금빛 들녘과 유유히 흐르는 곤양천, 바람결 따라 고개를 살랑이는 코스모스 군락까지. 가을의 정점을 느낄 수 있는 곤양천 독방길이다.



대시인이 탄생한 솔골마을

가을은 누구나 시인이 되는 계절이다. 코스모스가 흐드러지게 핀 솔골마을은 특히나 문학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낙화>라는 시로 익히 알려진 이형기 시인의 고향이 바로 이곳, 솔골마을이기 때문이다. 마을에는 이형기 시인을 기리기 위해 그의 초상과 시가 어우러진 벽화가 수 놓여 있다. 1933년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이 시인. 그는 넉넉지 않은 가정환경 탓에 2년간 이곳에서 살다가 진주로 이사를 갔다. 이 시인의 자술연보에 따르면 아버지의 권유로 취직이 잘 되는 진주농림학교에 입학했지만 학교를 다니며 공부는 뒷전, 문학에만 열을 올렸다고. 1948년 제1회 개천예술제 한글시백일장에서 16세 어린 나이로 장원을 차지해 남다른 문학적 재능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의 일생과 시를 떠올리며 솔골을 누비면 더 깊어진 가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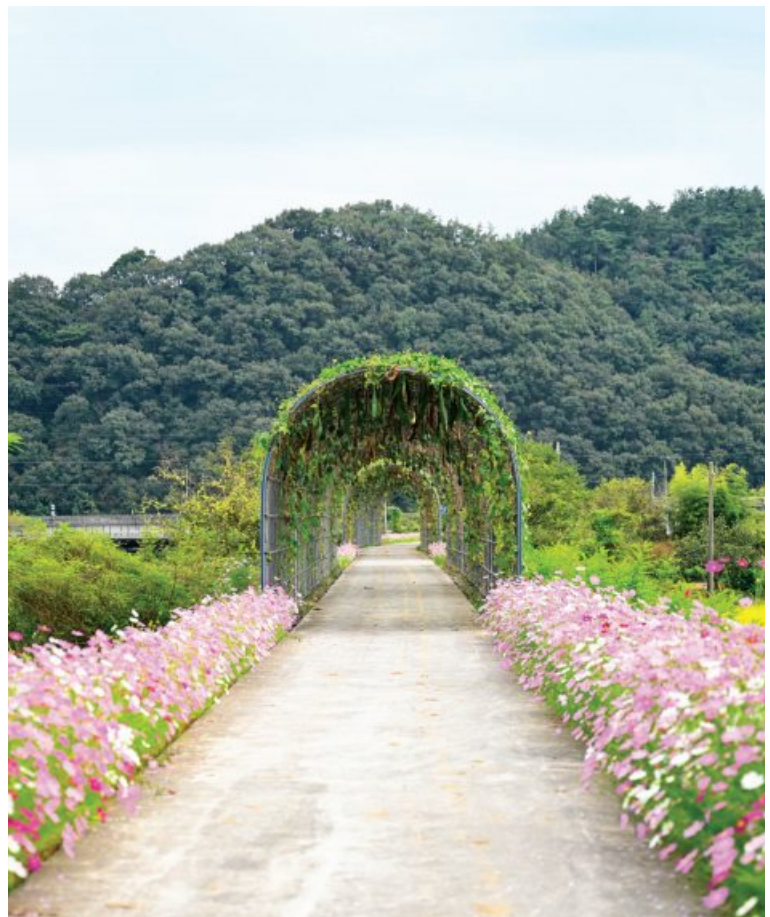


이름에 서린 이야기, 깊어가는 가을

코스모스와 조화를 이루는 곤양천과 이형기 시인의 고향으로 알려진 솔골마을. 이 두 곳의 이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 온다. 곤양천은 '비봉내'라고도 불린다. 이를 직역하면 '봉황이 날아오르는 내'라는 뜻으로, 봉황이 경치가 좋고 물이 맑은 곤양천에서 몸을 씻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솔골마을의 이름과 관련해 두 가지 설화가 전해진다. 하나는 임진왜란 당시 술을 걸어 병사들이 밥을 지어 먹었다는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곤양'이 힘차게 항해하는 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을이 밥을 짓기에 적당해 '솔골'이라 이름이 붙었다는 설화이다. 두 이야기 모두 사실 확인은 어렵지만 '솔'이라는 단어에서 밥을 짓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름에 얽혀 있는 이야기까지 알고 나니 더욱 특별해진 솔골마을과 곤양천이다. 올가을 소중한 이와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혹은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 싶다면 곤양천 유유히 흐르는 솔골마을로 향해 보는 건 어떨까.

가마득한 하늘가에 / 나의 가슴이 파랗게 부서지는 날 / 코스모스는 지킬라

- 이형기 시인 <코스모스> 중



주 소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78(곤양생활체육시설)



각산 편백나무숲
다솔사 명상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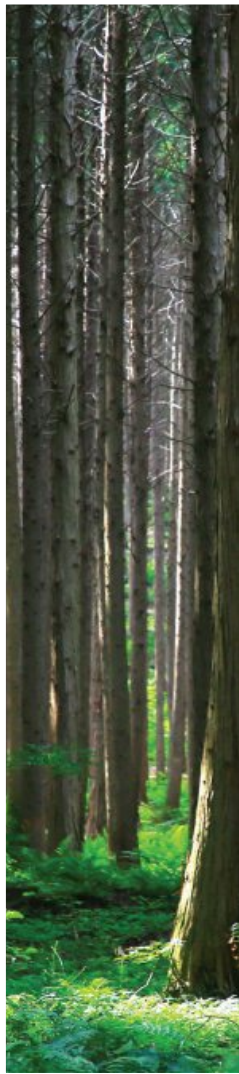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선정



사천시에 소재한 '각산 편백나무숲'과 '다솔사 명상숲'이 산림청의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잘 가꾸온 숲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국민 추천, 온라인 국민심사 등을 거쳐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선정했다. 명품숲은 산림 경영을 잘한 숲(산림경영형), 휴양을 즐기기 좋은 숲(산림휴양형), 보전 가치가 높은 숲(산림보전형) 등 3개 분야로 나눠 선정됐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유림 명품숲 50개를 발굴한 데 이어 올해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숲 50개를 추가 발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을 확정했다.





1

1 각산 편백나무숲
2,3 다솔사 명상의 숲



2



3

각산 편백나무숲과 다솔사 명상숲은 산림의 생태적·문화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으로 인정을 받아 올해 대한민국 명품숲 50개소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산 편백나무숲은 편백숲 훼손과 시설물 설치 최소화로 자연과 상생하는 친환경적 휴양림이다.

40년 이상 된 편백나무로 이뤄져 천연 향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온몸 가득 느낄 수 있는 일상에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숲속 내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여러 갈래 숲길이 조성돼 맨발 걷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숲속의 집, 유아숲체험원 등 자연친화적인 시설 설치로 아이들이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는 것은 물론 자연학습까지 가능하다.

다솔사 명상숲은 사천9경 중 하나로 유서 깊은 천년고찰인 다솔사가 자리하고 있고, 야생녹차의 시배지와 한용운, 김동리, 김법부 등 항일운동의 역사가 깃든 곳이다. 원시림과 같이 울창하게 자라난 측백나무·삼나무 사이사이에 소나무가 한데 어울려 특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산책로가 잘 가꿔져 있어 봉명산을 등산하거나 다솔사 주변을 산책하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사계절 내내 걷기 좋은 숲길이다.

제1회 사천읍성 축제

사천시 대표축제로 등극할까!!!

제1회 사천읍성 축제는 '꽃무릇의 붉은 물결, 옛사랑의 숨결로 탄생하다'는 주제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사천읍성 일원에서 열렸다. 600여 년 역사가 담긴 '사천읍성'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그동안 읍 지역 대표축제 부재로 부족했던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의 읍성을 재현한 역사문화 축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대표축제, 사천읍성 생태를 활용한 생태·환경친화축제를 표방하며 다양한 체험부스와 부대행사, 공연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켰다.

개막행사로 진행된 ‘달빛 성곽 밟기’는 축제 방문객들이 직접 연등을 들고 사천읍성의 성곽을 따라 걸어보는 도보행사로 가을밤의 운치를 더한 사천읍성 축제만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또한, 다양한 체험부스와 부대행사 역시 많은 방문객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다.

역사문화체험, 어린이 멸화관(소방관) 체험, 읍성 절대보물 찾기,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남녀노소

누구나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역사문화체험으로는 한복 체험, 읍성민 호패 체험, 전통 다례 체험, 국궁 체험 등,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읍성민 백일장 및 사생대회와 읍성민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다.

그리고, 축제 주무대에서는 가을밤 열린콘서트, 주민 자치프로그램발표회, 가산오광대 기획공연, 손양희 전통풍류콘서트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공연 행사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찾아가는 문화콘서트&사천드론라이트쇼’는 사천읍민의 오랜 염원을 담아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축제의 의미와 함께 사천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맞춤형 보편적 복지서비스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천’ 밀알 되겠다”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박재령 대표이사

“저는 나는 핑을 잡는 매입니다.
매가 핑을 잡지 못하면 더 이상 매가 아닌 것처럼,
조직의 리더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리더로서의 가치를 잃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임직원들의 기부터 살리며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박재령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그의 표정과 말에서는 보편적 복지를 향한
소명의식이 풍겨 나왔다.



직원들과의 허심탄회한 소통,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행복도시 사천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기대에 부응해야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육성이라는 명제 아래 변화하는 청소년문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청소년정책을 실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시민복지를 위해서는 사천시의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사천시가 지향하는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위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박재령 대표이사는 재단을 맡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복지전공자로 퇴직 전 공직자로서 바라본 공적 복지가 지역의 보편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소 관심이 많았습니다. 복지 일선에서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고픈 욕망이 아마도 복지·청소년재단에 지원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사천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복지 일선에서 실현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하게 시켜 시민과 지역 청소년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지역 정서에 맞는 복지재단의 모델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발굴과 연계를 통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나눔 문화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전문기관으로 거듭나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은 2008년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로 출범해 2021년 복지·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

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경남지역에 하나뿐인 경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장례사업소인 누리원을 관할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용 규모에 따라 구분합니다. 모두 예술, 스포츠, 동아리, 봉사, 지도 품성 함양 등 청소년의 다양한 꿈과 끼를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 상황에 노출된 청소년 조기 발견과 일시보호, 긴급구조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위험 노출 청소년 발생 때 24시간 청소년 전화 1388 연계와 청소년 임시보호 활동 수행,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고발 등의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경상남도 초·중·고 학생들의 성교육과 더불어 위기 대상 아동·청소년 성교육·성 상담 제공, 성폭력 피해 예방 지원 활동, 관계기관 네트워크 활성화와 청소년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한 건강한 성문화 확산, 아동·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성교육 전문기관입니다. 누리원은 저렴한 가격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지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은 기 살리기부터

사천시의 보편적 복지라는 평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매가 되어야 한다. 박재령 대표이사는 매 조련사 역할을 자임하며 물이 땅에 소리 없이 스미듯 조용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 임직원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직원들이 한가한 시간을 찾아 부서별 토크를 지향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평소 책이나 신문에서 메모해 둔 좋은 글귀를 적재적소에 사용해 말머리를 풀어가며, 사업 아이디어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소통의 시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재단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원들의 기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해야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취임 후 저는 제일 먼저 공무직들의 일반직 승진을 추진했습니다. 직장이 보장되지 않고, 승진하지 않는다면 누가 힘써 평을 잡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유능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제시하면 계획수립부터 추진사항에 이르기까지 빈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재단의 내부 규정을 체크해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죽어라 일하고 싶은 직

장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에게 주어진 1차 사명입니다. 기를 불어넣자 직원들의 발상이 전환되어 각 부서별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났던 사업과 행사들이 ‘모두의 잔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복지전문기관 컨트론타워 역할 추구

우리나라의 중소지방들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라는 크나큰 명제에 사로 잡혀 있다. 사천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재단 또한 청소년에 국한된 사업이 진행된다면, 언젠가는 해단하는 수순이 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재단은 미래의 방향성을 청소년 사업과 복지사업을 병행하는 재단으로의 변화를 통해 재단이 가진 가치를 실현하고자 명칭을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으로 바꾸었다.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분야 등을 아우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령 대표이사가 재단의 방향타를 잡은 지 채 6개월도 안되었지만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1 경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2 사천시 누리원 3 허브정원 가꾸기





4



5

4 낱말 퀴즈 수업 5 청소년문화의집 바리스타 자격 과정
6 사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들 7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노력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이란 시책 아래 청소년의 문화적 성장과 주체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상호소통하며 청소년 성장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예산은 늘 걸림돌이다.

“생각보다 정부의 청소년 사업에 대한 예산이 빈약하여, 매년 지자체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청소년 사업은 그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천읍 정동 사남지역의 청소년 비중이 높으나 협소한 문화의 집 시설 문제, 오랜 사용으로 시설과 트렌드가 낡은 경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개선 문제, 사천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무보수 강사 문제 등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e스포츠 교실과 바리스타 자격 과정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청소년과 시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누리는 그날까지요.”

“그 첫 번째는 조직의 확장으로 들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운영상 종사자 수가 60명을 넘어 가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어 그 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비대한 부서를 일부 조정하여 청소년복지지원센터와 복지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향후 이양사업에 대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수련관의 신규 사업 확장입니다. 지역소멸기금으로 수련관 4층 예절당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동시에 창작교실을 유튜브 스튜디오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 청소년에게 ‘플랫폼에 기반한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상남도과 사천시에 청소년수련관과 경상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의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단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요구로 현재 경상남도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사업이 확정되면 지역 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수련활동의 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6



7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창립 6주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 준비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재천)이 창립 6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7년 사천시 해양관광산업을 선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출범한지 6년째인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은 조직이 확대되고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나온 6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지역경제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의 미래 비전을 살펴보자.





“변화와 혁신 통해 공익과 수익 잡겠습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도 결국은 기업임을 늘 염두에 두고 탄탄한 재무구조 유지와 투명한 경영으로 시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장 파악과 SWOT[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기(threat)] 분석으로 공단의 장·단점을 철저하게 파악해 체질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아울러, 공단 사업의 적정 영역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경영의 자율성과 전문성도 제고하도록 힘쓴다. 또 각종 시설 사용에 대해 시와 긴밀한 협조로 요금체계를 전면 검토해 불합리를 없애고 현실화시켜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항공우주·해양 등 미래비전 준비 철저

사천바다케이블카에 이어 공단은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인 우주항공산업과 청정해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관광산업의 장기 비전과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민간기업과 인근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의 상호협력을 통한 ‘연계관광’을 모색하고 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와 함께 초양도에 개관된 아쿠아리움, 동물원, 대관람차, 회전목마와는 물론 인근 남해지역과의 연계관광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향후 조성 예정인 한려해상국립공원 5개 섬을 연결하는 ‘삼천포 무지개 생태탐방로’를 비롯해 실안리조트형 호텔 등과 연계사업을 추진해 공단의 경영수익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시민들 체력증진 여가생활 향상에 최선

사천시설내수영장은 24년이나 된 노후시설로 관리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을 목표로 꾸준히 점검·보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시민의 요청에 따라 아쿠아로빅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해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또 현재 공단은 사천시로부터 우주항공국민체육센터를 추가로 수탁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각 시설은 대관 및 부대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수영강습을 비롯해 에어로빅, 발레, 댄스, 바둑&장기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정 사천을 공단이 지켜가겠습니다.”

공공하수·폐기물처리시설은 그동안의 예산절감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설물 보수 및 개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제도 참여 등을 통해 6억여 원의 예산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시제어 구축시스템의 안정화, CCTV 추가설치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실험실 정도관리 공신력 확보 등 운영체계를 강화해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리 공단이 6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이토록 괄목할 만한 성장 발전을 이룬 것은 우리 시설에 방문해 주신 시민과 고객님들의 애정어린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사천시 해양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시민과 고객에게 책임을 다하는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재천 이사장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전통민화 과정 수강생 전원 공모전 입상 쾌거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전통민화 과정 수강생들이 전국규모의 큰 대회에서 잇따라 대거 입상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사천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사천시 평생학습센터에 따르면 전통민화과정 수강생들이 올해 7월과 9월에 각각 개최된 경남환경미술대전과 개천미술대전 공모전에서 '출품작 전원 입상'이라는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

지난 7월 2일 개최된 제17회 경남환경미술대전에는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전통민화 수강생 12명이 출품해

전원 입상했다.

입상한 수강생은 △특선-기다은, 전나진, 황연주, 탁영순, 김현숙 △입선-김재분, 황옥순, 이은미, 이지선, 김태삼, 전숙경, 장성희 등이다.

또한, 지난 9월 8일에 개최된 제72회 개천미술대전에서도 수강생 10명이 전원 입상했는데, 신연자(우수),



- 1 2023 개천미술대상전 특선작
기다은 <책가도>
- 2 2023 개천미술대상전 입상작
탁영순 <해바라기>
- 3 2023 개천미술대상전 우수작
신연자 <군작도>



김현숙, 기다은, 황연주, 조영숙(특선), 탁영순, 김재분, 황옥순, 장성희, 전숙경(입선) 등이다.

제72회 개천미술대전 입상 작품전시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실, 제2전시실에서 열리고, 추후 사천시 청사 등에도 전시할 계획이다.

한편, 사천시 평생학생학습센터 전통민화 과정은 주1회 3시간씩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사천시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전통민화 과정 수강생들이 우수한 기량을 뽐내며 전국 규모 대회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생활 만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호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장 임명



신현호(64) 현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장이 8월 28일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천시협의회장으로 임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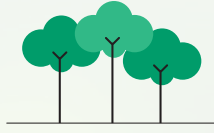
신현호 협의회장은 현재 ㈜해창마린 대표, 바르게살기운동 사천시협의회장, 동서동 건강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9월 1일 출범한 제21기 민주평통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문위원 총 2만 1,000명이 위촉됐으며, 이 가운데

273명의 위원이 국내외 협의회장으로 임명됐다.

제21기 민주평통 사천시협의회는 신현호 회장을 비롯한 54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9월 1일부터 2년간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천시,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 공모 선정

폐역된 다솔사 유희부지에 '곤명웰니스파크' 조성

경전선 복선화사업으로 폐역된 예전의 다솔사역 유희부지가 문화·체육공원으로 탈바꿈한다. 국가철도공단 주관하는 제17회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 '곤명웰니스파크 조성'이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곤명면 봉계리 일원에 소재한 예전의 다솔사역 유희부지 중 44,654㎡에 파크골프, 클럽하우스, 산책로 등을 조성하게 된다.

철도 유희부지 활용사업은 국가 소유의 철도 유희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전 컨설팅, 제안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최장 20년간 철도 유희부지 사용료를 면제해 준다. 이번 '곤명웰니스파크 조성'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의 수요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을 모으다 ————— 사천의 자랑

with 우주항공전

2022 사천에어쇼



하늘로! 바다로!
우주로! 사천으로!

11.4.(토) ~ 11.5.(일)
삼천포대교공원





2023 사천에어쇼 하늘로! 우주로!

사천에어쇼는 올해부터 홀수 연도에는 사천비행장 외의 장소에서, 짝수 연도는 사천비행장에서 행사를 하게 된다. '2023 사천에어쇼'는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열리며, 짝수 연도와 차별화를 위해 야간 체류형 프로그램인 축하공연, 드론라이트쇼, 불꽃쇼 등을 새롭게 선보이고, 우주항공청 개청의 염원을 담아 우주항공 관련 체험·교육과 '제1회 사천우주항공교육축전'(사천교육지원청 주관)을 연계한 진행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에어쇼 홈페이지 (<https://airshow.sa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축하공연 /드론라이트쇼(불꽃쇼)

11월 4일 17시부터 삼천포대교 공원 해상무대에서 사천시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축하공연과 드론라이트쇼(불꽃쇼 포함)가 펼쳐진다.



에어쇼

'2023 호주 아발론 국제 에어쇼'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한 블랙이글스팀(Black Eagles)이 삼천포대교 위에서 환상적인 곡예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다.



학술회의

우주산업 및 미래항공모빌리티 국제컨퍼런스
2023 비행시험세미나
우주항공산업 발전세미나



항공대회

진정한 실력자는 누구인가?
전국모형항공기대회는 11월 4일 삼천포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제2회 종이비행기대회는 11월 11일 사천체육관에서 열린다. 제2회 종이비행기대회는 11월 9일까지 사전 접수 받는다.



체험·교육

우주/항공 관련 체험·교육
안전관련 체험 교육
4차 산업혁명 콘텐츠 체험 (드론/VR/AR/코딩/로봇 등)



주요행사일정

11.4.(토)

오전일정

식전공연	10:00~10:30	공군 의장대/군악대 공연
개막식	10:30~11:00	국민의례, 개회사, 개막선언
에어쇼	11:00~11:25	블랙이글스팀
사인회 및 기념촬영	11:25~12:00	블랙이글스팀

오후일정

인형극 공연	12:05~12:35	인형극(적구놀이)
태권도 시범	13:20~14:00	삼천포고교 태권도 시범단
즉석 이벤트1	14:00~14:15	퀴즈 이벤트1 🎁
댄스공연	14:15~14:50	라잇앤솔
에어쇼	15:00~15:25	블랙이글스팀
즉석 이벤트2	15:30~16:00	퀴즈 이벤트2 🎁
축하공연	17:00~20:00	공군 군악대 치어리딩(슈팅스타) 초청가수 공연(김혜진, 성빈, 똥갱스, 소찬휘, 코요태) 드론라이트쇼, 불꽃쇼

11.5.(일)

오전일정

마술공연	10:00~10:30	국가대표마술사
군악대공연	10:30~10:55	공군 군악대/의장대 공연
에어쇼	11:00~11:25	블랙이글스팀
사인회 및 기념촬영	11:25~12:00	블랙이글스팀

오후일정

버스킹 공연	12:00~12:55	옴팡, 더클래식
종이비행기 시범	13:00~13:30	종이비행기 국가대표팀 시범
태권도 시범	13:40~14:20	삼천포고교 태권도 시범단
버블쇼 공연	14:25~14:55	버블아티스트 MC선호
에어쇼	15:00~15:25	블랙이글스팀
풍선아트 공연	15:30~16:20	키다리 삐어로
난타 공연	16:25~16:40	소리누리
즉석 이벤트3	16:45~17:20	퀴즈 이벤트3 🎁

※ 행사기간에는 국도 3호선의 혼잡이 예상되오니, 셔틀버스 및 동지역 순환 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및 셔틀버스 안내

· 운영시간: (토)9:00~21:00 / (일)9:00~19:00

· 셔틀버스 앞면에 부착된 셔틀번호를 확인하시어, 돌아가시는 길에 같은 번호로 탑승 바랍니다.

행사장 진입방면	셔틀 번호	운행노선	평균 운행 간격	비고
A 승·하차장 (실안해안도로)	A1	사천종합운동장 ↔ 실안해안도로	15분	
	A2	사천시청 ↔ 실안해안도로	10분	
	A3	실안관광지 임시주차장 ↔ 실안해안도로	8분	
B 승·하차장 (사천바다케이블카)	B1	사천제1일반산단/ KAI정문인근/S&K항공/ 첨단항공우주과학관 ↔ 사천바다케이블카	10분	
	B2	삼천포종합운동장 ↔ 사천바다케이블카	20분	
	C1	새마을회관(벽동마을) ↔ 남양 아리안APT ↔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 삼천포농협 화전R ↔ 예미지APT ↔ 노산APT ↔ 동서공동주민센터 ↔ 목전빌딩 ↔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 사천바다케이블카	20분	동 지역 순환 버스



사천에어쇼 배치도





e스포츠의 비전과 미래를 함께 Let's Go

사천 곤명중학교



아담한 송비산 아래 고즈넉이 자리 잡은 사천 곤명중학교 학생들은 수준별 방과후 수업과 e스포츠를 배우며 학교생활의 행복과 함께 꿈과 끼를 키워나가고 있다. 특히 e스포츠 분야에 대한 중학교 공교육이 부재한 현실에서 소규모 학교로서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e스포츠 특성화 중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학교를 향해 전력 질주

학생 17명,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14명. 소규모 학교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e스포츠 분야를 교육과정으로 편성했다. 사립학교지만 재정도 튼튼하고, 이사회에서는 교사들의 노력에 감동받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교사 1명당 학생수가 2명도 안되니 수업도 학생에 맞는 개별 학습으로 진행한다.

곤명중학교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e스포츠를 정규 수업으로 가르치고 있어 팀 활동, 공동체, 의사소통, 사회성 능력등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적 가치들을 학생들이 좋아하는 e스포츠(리그오브레전드)를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 돌봄과 치유, 나아가 성공 중심에서 행복 중심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e스포츠, 사교육과 학원에 의존

특히 e스포츠는 전국 어느 중학교에도 실질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과목이다. e스포츠는 지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 채택 이후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가장 높은 티켓 값과 관람객 경쟁률로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현재 올림픽(IOC)에서도 채택 여부를 놓고 열띤 논의 중이다. e스포츠는 한때 게임이라며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지만 어렸을 적 문방구 앞 오락기에서 많이 하던 스트리트 파이터 종목 금메달리스트 이관우(44세) 씨의 눈물과 인터뷰처럼 세대와 나이를 뛰어넘어서는 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e스포츠의 종주국이라 불리지만 중학교 공교육의 외면으로 중학생은 사교육과 학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안세환 교장선생님은 “다른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따라하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분야는 e스포츠라 판단했습니다. 곤명면 일대는 학생 문화와 기반 시설이 전무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e스포츠는 우리 지역 학생들과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바람의 활력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1 사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참가(3위 입상)
 2 전교생이 참여하는 모바일 배그 e스포츠 대회
 3 음악 밴드 색소폰 방과후 수업

e스포츠를 향한 변화와 도전

e스포츠는 세대를 넘어서서 젊은 친구들의 생각을 읽고 배우며 공감할 수 있다. 교육적으로 요구하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인 자기관리 역량(피드백, 건강, 시간 관리), 지식정보처리 역량(정보탐색, 정보공유, 벤픽 연구), 의사소통 역량(전략토론, 전술회의, 한타, 갱킹), 창의적 사고 역량(인베이드 전략, 챔피언 연구, 창의적 접근), 공동체 역량(팀 단위 소통, 협동, 협력, 사회성), 심미적 감수성 역량(음향, 미술, 그래픽)을 향상시킨다. 곤명중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학교 e스포츠 특색사업을 중점으로 교과와 연계하여 이끌고 있으며, 진로 3루트인 게임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진학, 프로 게임 구단 입단,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을 통한 게임 관련 학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생 중심 진로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학생들의 말들을 종합하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해해 줘 학교 오는 것이 즐겁다. 새로운 친구들과 게임을 주제로 대화하고 서로 배워 빨리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공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학업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e스포츠 분야에 흥미로운 직업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런 관계로 학생들은 주말에도 학교에 오고 싶다고 한다.

안세환 교장과 김형태 교사의 끊임없는 연구로 e스포츠 활동을 실제 할 수 있는 전용 인터넷선을 학교로 끌어오고, 시설도 e스포츠 전용 프리미엄 컴퓨터를 직접 주문 제작했다. 특히 안세환 교장은 특성화중학교 전환을 위해 경남교육청, 사천교육지원청, 사천시, 곤명면행정복지센터 등을 찾아 다방면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e스포츠를 고등학교 근무 시 학생 동아리로 시작하여 전문지식을 쌓았던 김 교사는 현재 중학교 e스포츠 교과목 신설과 교과서 집필을 기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학생에게 가르칠 교과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전국단위 e스포츠 융합 교과연구회를 조직하여 대학 교수, 중고교 교사, e스포츠 협회 국장 10분을 모시고 2022개정 교육과정을 목표로 교과서 초고본 집필 중이다.

중학교 교육과정 구성이 궁극적인 목표

김형태 e스포츠 수업 담당 선생님은 "e스포츠는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는

학생들에게 학업에서 잠깐 쉬어나갈 수 있는 쉼터이자 힐링인 메타공간입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현재의 아이들과 일상 대화를 이어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년 1학기에는 리그오브레전드 국제대회(MSI)를 참관하기 위해 해외 이동수업 예정이고, 2학기에는 e스포츠 전국대회를 개최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세계와 미래 그리고 글로벌적 시각을 높여줄 수 있는 순기능이 많습니다. 가끔 초등학교 자녀들을 지닌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우리 아이가 집에서 게임만 하는데 진짜 재능이 있는 건지 그냥 아무 생각없이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만약 정말 능력이 있다면 본인이 하고 싶은 장래를 지원해주고 싶지만 이를 판단하기란 부모로서 너무 어렵다라는 현실적 고민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학교는 중학교 3년간 의무교육으로서 국영수사과의 기본과목을 충실히 가르치며 게임의 재능보다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면 인문계고를 통해 게임 관련 학과 대학 진학을, 학업보다는 게임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다면 게임 마이스터-특성화고를, 게임에 대한 재능이 탁월하다면 프로그래밍 구단에 직접 연계하는 삼중 시스템을 구축하려 합니다. 꼭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e스포츠에는 정말 많은 직업

들이 있고 게임은 취미로 즐기면서 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지켜볼 때 몰입감은 대단하다고 느낀 적이 많을 겁니다. 어른들도 관심있고 흥미있는 영역에 높은 집중력과 활동력이 나타나듯 아이들도 같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직업으로 삼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그리던 꿈이지 않을까요? 이를 이룰 수 있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e스포츠실 5 도서관



안세환 교장선생님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지역에서 소규모 중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는 특성화 교육과정 구성입니다. 교직원들은 학생, 지역민들과 함께 e스포츠를 바탕으로 인근 초등학교와 상생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김형태 e스포츠 담당선생님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하나의 메타공간입니다.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군면제도 가능해졌죠. e스포츠는 학교에 대한 흥미, 일상생활 스트레스 해소, 힐링 그리고 교직원과의 소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다혜 학생(전교회장)

“우리 학교는 월~토요일 특색화된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어요. 특히 e스포츠는 선후배간 사교성, 열공하다 쉬는 쉼터, 친구들과 소통하는 공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롤을 통해 세계와 의사소통하는 상상을 해보는 것도 멋진 것 같아요.”



이수아 학생(전교부회장)

“우리 학교는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많아요. 방과 후 시간에 개인 수준과 소질에 따라 월요일은 색소폰 빅밴드, 화·수·목은 영어·수학 학습, 금요일은 제과제빵, 바리스타를 배워요. 멋진 제빵사(파티쉐)가 되고 싶은 꿈도 여기서 갖게 되었어요.”



홍지희 학생(학원)

“초등학교보다 재미있어요. 빅밴드를 배우는데,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워요. e스포츠를 통해 컴퓨터와 점점 친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번 겨울방학 스키 캠프 때 e스포츠를 통해 향상된 동체시력을 테스트 해 보고 싶어요.”

지금, 사천N

EEW KOREA 작은사랑나눔회, 연탄 1,400장 나눔 봉사활동



사천지역에 소재한 EEW KOREA(대표 탁관규, 김덕한)의 자원봉사 동호회 '작은사랑나눔회(회장 설재희)'는 10월 16일 관내 연탄을 난방으로 하는 4세대에 연탄 1,400장을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작은사랑나눔회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성 애육원 자원봉사 등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20년째 이어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각산봉사회, 취약계층 '안녕 꾸러미' 전달



대한적십자사 각산봉사회(회장 이명자)는 10월 17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안녕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각산봉사회는 취약계층 40가구에 탕수육을 포함한 식품, 갑티슈, 밀폐용기 등 생필품 10가지로 구성된 안녕꾸러미를 직접 전달하면서 건강 안부까지 확인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각산봉사회는 경로당 위문, 밑반찬 나눔, 여름 보양식 전달 등 취약계층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참다운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사남면체육회 초전공원에서 황금들녘 건강걷기대회 개최



사천시 사남면체육회(회장 박성한)는 10월 14일 사남면 초전공원에서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지역주민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남면 황금들녘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초전공원에서 출발해 방지마을 정자, 초전 논길을 지나 다시 초전공원으로 돌아오는 3km 정도의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걷기대회로 수확의 계절 가을풍경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사천시 공동육아 나눔터, 지역사회 판매자와 알뜰장터 운영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소속 사천시 공동육아나눔터는 10월 14일 초전공원에서 하반기 자녀돌봄 품앗이 전체모임으로 지역사회 판매자와 함께하는 알뜰장터를 운영했다.

이날 알뜰장터에 일일 판매자로 참여한 자녀돌봄 품앗이 24가족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던 장난감, 의류, 책, 생활용품 등을 무료 나눔하거나 최대 1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사천시 동서금동 건강위원회, 취약계층 대상 레크리에이션 운영



사천시 동서금동 건강위원회(위원장 김옥선)는 10월 13일 동서금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인 ‘날숨에 하! 들숨에 호! 웃음가득 동서금동’ 행사를 가졌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중 하나인 이번 행사는 건강힐링 체조, 웃음치료(노래와 함께 제대로 웃는 방법), 스트레칭 등 운동을 놀이처럼 자연스럽게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사천읍주민자치회, 천연염색 일일 체험교실 가져



사천시 사천읍주민자치회(회장 안성조)는 10월 17일 사천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천연염색 일일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2023년 마을 자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관내 주민으로 구성된 수강생 80여 명이 천연염료를 활용해 스카프를 염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연염색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기법 및 과정에 대해 알아가는 교육 과정에 대한 수강생들의 호응 및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서포사랑청년회 주관 제16회 면민노래자랑 성황리에 열려



제16회 서포면민 노래자랑 및 화합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포사랑청년회(회장 김동민) 주관으로 지난 9월 28일 서포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서포면민 노래자랑은 300여 명의 주민과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출향인들의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서포사랑청년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신나는 축하공연은 주민들의 흥을 돋우기도 했다.

제17회 곤명면민체육대회·노래자랑 주민 등 1,000여 명 참석 열기 후끈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개최된 ‘제17회 곤명면민체육대회 및 한마음 면민노래자랑’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천시 곤명면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곤명면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10월 14일 곤명생태학습체험장 축구장에서 내빈,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25개의 마을이 6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식전공연에 이어 14종목의 체육 경기가 열렸다.

지금, 의회N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 타지자체 우수사례 견학 실시



지난 10월 4일,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위원장 전재석)에서는 지자체간 교류 협력을 다지고 섬지역 자원 활용 사례 등을 견학하기 위해 2박 3일간 울릉도를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울릉공항 건설에 따라 사천시와의 항공 노선 구축 등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울릉도 섬지역 자원 활용 방식과 어촌마을 정주 여건을 비교 시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울릉도 도착 첫날에는 울릉공항이 들어서서 사동항 일원과 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2025년 울릉공항 준공에 맞춰 사천~울릉 간 항공노선 구축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행정적 절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견학 일정에서는 여촌 인구 감소와 수산업 침체로 힘든 삼천포구항 및 동지역 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울릉군 주요 항구들을 시찰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여촌마을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견학하며 여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안을 연구하였다. 또한, 울릉군의 '섬'과 '바다'라는 자연 환경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시찰하면서, 우리 시의 섬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과 해당 사례를 접목시킨 정책적 지원 방향을 고민하였다.

전재석 위원장은 “우리 시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우주항공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사천공항의 신규 노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우주항공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삼천포 동지역 활성화를 통해 하늘과 바다 모두를 아우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천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는 위원장 전재석, 부위원장 박정웅 의원을 비롯해 김규현, 박병준, 최동환 위원으로 총 다섯명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생활정보

1



11·12월 시민정보화교육 수강생 모집 안내

• 교육과정

월별	교육기간	과정명	시간	교육장소	대상자
11월	10.30. ~ 11.17.	[시니어] 스마트폰 활용	10:00 ~ 12:00	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 (벌용동)	사천시민 누구나 *[시니어]: 60세 이상 신청 가능 (생일이 지난 1963년생부터 가능)
	11.20. ~ 12.8.	[시니어] 한글 문서작성 기초			
	10.30. ~ 11.10.	한글 문서작성 기초	13:00 ~ 15:00	제일전산학원 (사천읍)	
	11.13. ~ 11.24.	한글 문서작성 기초			
	11.27. ~ 12.1.	미리캔버스			
12월	12.4. ~ 12.15.	스마트폰 활용			
	12.18. ~ 12.22.	파워포인트			

※ 강사 일정 및 상황에 따라 교육일정 및 수강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10.16.(월)]부터 각 과정 시작 전까지(선착순)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복지/생활 → 시민정보화 교육 → 시민정보화교육강좌 신청 → 강좌 선택
- (전화) 정보통신과 ☎831-2307
- 수강료 : 무료(교재 무료 제공)
- 연간교육일정 : 사천시 홈페이지 → 복지/생활 → 시민정보화 교육 → 교육일정 안내(2~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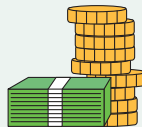


2



2023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추진개요 : 체납징수 강화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 추진기간 : 2023년 10월 ~ 12월
- 추진내용
- 체납안내문, 농업직불금 압류예고문 등 발송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조치
- 부동산·차량·예금 등 압류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추진
- 관내 농업직불금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농업직불금 압류·추심



3

제7회 사천시공예협회
정기회원전

- 전시기간 : 11.14.(화) ~ 11.21.(화)
[8일간]
- 전시장소 :
- 사천미술관
- 주최/주관 :
- 사천시공예협회
- 내용 :
- 공예 작품 회원전



생활정보



4

「사천사랑 시티투어」 운행 코스

□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체험시설 사전 문의)

문화관광 코스(화요일~일요일 선택)			
일정	소요시간 (분)	주요 내용	비고
09:30		사천·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진주역 출발	출발일, 출발인원에 따라 조정
10:00~11:00	60	① 다솔사 또는 와인갤러리	
11:00~12:00	60	②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항공우주박물관	입장료 (자부담)
12:00~13:00	60	중식(관내 식당 이용)	중식비 (자부담)
13:00~14:00	60	③ 삼천포용궁수산시장	
14:00~17:00	180	④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삼천포대교공원	탑승 입장료 (자부담)
17:30		사천·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진주역 하차	

항공·체험관광 코스(화요일~일요일 선택)			
일정	소요시간 (분)	주요 내용	비고
09:30		사천·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진주역 출발	출발일, 출발인원에 따라 조정
10:00~12:00	120	① 체험시설 1개소 방문·체험 (※ 사전 예약 필수)	체험료 (자부담)
12:00~13:00	60	중식(관내 식당 이용)	중식비 (자부담)
13:00~14:00	60	②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항공우주박물관	입장료 (자부담)
14:00~15:00	60	③ 삼천포용궁수산시장	
15:00~17:00	120	④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입장료 (자부담)
17:30		사천·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진주역 하차	

역사탐방 코스(화요일~일요일 선택)			
일정	소요시간 (분)	주요 내용	비고
09:30		사천·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진주역 출발	출발일, 출발인원에 따라 조정
10:00~11:10	70	① 다솔사, 세종대왕·단종 태실지	
11:10~12:00	50	② 선진리성	
12:00~13:00	60	중식(관내 식당 이용)	중식비 (자부담)
13:00~16:00	180	③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삼천포대교공원	탑승 입장료 (자부담)
16:00~17:00	60	④ 대방진굴항 또는 노산공원 일원 (박재삼문학관, 호연재)	
17:30		사천·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진주역 하차	

달빛관광 코스(화요일~일요일 선택)			
일정	소요시간 (분)	주요 내용	비고
13:00		사천·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진주역 출발	출발일, 출발인원에 따라 조정
13:30~15:00	90	①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항공우주박물관	입장료 (자부담)
15:00~16:00	60	② 백천사, 최초 거북선길 (무지갯빛 해안도로)	
16:00~17:00	60	③ 대포항(그리움이 물들면, 사랑의 불시착 촬영지), 실안 노을빛 카페거리	
17:00~18:30	90	④ 사천바다케이블카(금·토·공휴일 운행 시), 삼천포대교공원	탑승료 (자부담)
18:30~19:30	60	⑤ 석식(삼천포용궁수산시장 또는 팔포음식특화거리)	석식비 (자부담)
20:00		삼천포신항여객터미널(사천↔제주), 사천·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 또는 진주역 하차	

5

사천사랑상품권 홍보 안내

-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11월 구매 안내
 - 발행금액 : 20억 원
 - 할 인 율 : 10%
 - 판매기간 : '23. 11. 1.(수) 09:00 ~ 발행액 소진 시 까지



- 구매한도 : 월 1인당 40만 원(모바일 20, 지류 20)
- 문 의 : 사천시청 지역경제과 ☎055-831-3076

사천시 홈페이지 참고

- ◆ 지류 재고 현황 : 「기업/경제 - 사천사랑상품권 - 지류 상품권 재고 현황」 참고



방긋 희망이들

사남편

이혜리(23.9.11.)

혜리야, 태어난 걸
축하하고 사랑한다.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아빠 이상민♥엄마 이선진



정동편

노은우(23.9.4.)

은우야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사랑해~♥

아빠 노승민♥엄마 이미란



동서글동

김지안(23.9.25.)

지안아, 아빠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주렴♥
우리 가족 행복하자 사랑해♥

아빠 김영진♥엄마 김주영



정동편

권도하(23.9.22.)

도하야 아빠 엄마에게
와줘서 고마워
아빠 엄마랑 건강하고
즐겁게 살자~ 사랑해♥

아빠 권대근♥엄마 주선미



동서글동

박지호(23.9.19.)

지호야 아빠,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사랑해♥

아빠 박성훈♥엄마 전주희



별음동

김유안(23.9.12.)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유안아. 사랑해♥
유안아.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다오^^

아빠 김덕영♥엄마 김세원



별음동

황도준(23.9.1.)

도준아. 건강하게,
바른 사람으로 잘 자라다오.
사랑해♥

아빠 황장훈♥엄마 정지윤



- 대 상 : 사천 출생아 중 신청가구
- 내 용 : 아기에게 전하는 축하의 글
- 신청기간 :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아기 출생신고 시 또는 별도 신청 가능
- 접 수 처 : 사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 의 : 사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겨울을 준비하는 딱새

11월이 찾아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맴도는 계절,
겨울을 준비하는 딱새 한 마리가 붉은 열매를 따 먹고 있다.



청은 윤길중 선생의 글씨 은사동 도원곡비

곤명면 은사마을 입구의
버스 승강장 옆에는
‘은사동 도원곡(隱士洞 桃源谷)’이라는
작은 비석이 서 있다.
전면 46cm, 측면 20cm, 높이 155cm의
작은 화강석 비석으로 국회 부의장을 지낸
청곡 윤길중(靑谷 尹吉重. 1916~2001)
선생의 글씨다.

마을 내력 풍광에 매료돼 글씨 써

선생은 함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경성 법정학교, 일본대학 법과를 졸업한 뒤 조선 변호사 시험,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 전남 강진과 무안군수를 지냈다.

해방과 함께 과도입법의원 총무과장, 국회 법제조사국장을 맡았다가 1950년 원주에서 민의원으로 당선됐다. 조봉암의 진보당 창당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민주당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나중에 5.16으로 탄압받아 7년간 복역하는 등 옥고를 겪기도 했으나, 80년 국보위 입법위원을 계기로 여당정치인으로 변신해 1983년부터 2년간은 국회부 의장을 지내고 민주정의당 대표도 했다.



그는 이 마을 출신 사위인 이현수(14대 국회의원, 1938~1996) 의원 부친상에 왔다가 마을 내력과 풍광을 보고 글씨를 써 전했다고 한다. 휘호는 전면과 양 측면에 음각돼 있고, 뒷면에는 한학자다운 글솜씨로 마을 예찬론을 직접 짓고 썼다. 桃源谷의 桃源은 중국 당나라 시인 도연명(陶淵明)의 시 도화원기(桃花源記)를 줄인 표현이다.





隱士洞 桃源谷

산 높고 물 맑은 泗川땅 隱士洞은
 옛 선비 회적(晦跡)하며 학문(學問)을 강마(講磨)한 곳
 기화요초(琪化瑤草) 자생하니 무릉선경(武陵仙境) 아니던가
 왕가태실(王家胎室) 뽕했으매 남도감지(南道吉地) 여기로다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라 동량지재(棟樑之材) 배출하며
 관역(權域)의 이 강토(疆土)를 뉘언천추(縣延千秋) 빛내리라

선비가 은둔해 산다는 ‘은사’

청곡 선생의 글이 아니더라도 이 마을은 선비가 은둔해 산다고 하여 은사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인지 350년이 넘는 마을 역사를 보면 은둔해서 한학을 한 학자가 많은데, 벼슬은 돈녕부 도정(오늘날의 차관급) 외에는 보이지 않다가 해방이 되면서 최근까지 시장 군수, 국회의원, 박사, 판사 등의 관계와 기업인 등이 배출되고 있다.

이 비석 외에도 인접한 곳에 도정(都正)을 지낸 만은(晩隱) 이존수(李存洙) 공의 행장과 창람(暢嵐) 이정한(李楨瀚, 2대 경남도의회의장) 공의 기적비, 조산(朝山) 이현수(李鉉帥) 국회의원 추모비도 있다.

이완용



신수도, 오랜 일상 속을 거닐다

최재길 자연의 여행자

잠시 잠깐의 뱃길, 풍무니에서 멀어지는 포말을 바라본다. 신수도 선착장엔 빨강고 하얀 두 개의 등대가 반긴다. 남으로 굽어보는 언덕엔 해풍으로 엮은 집들이 다닥다닥 모여 있다. 그 너머론 외룡산이 든든한 배경으로 서 있다. 신수도는 또 어떤 풍경, 어떤 식물들이 반겨줄까? 낯선 설레임! 바다 품은 길 위에 여행자의 호기심을 엮는다.

찰랑! 차알랑! 차르르~ 파도가 속삭이는 몽돌 해변. 소리마저 몽글몽글 귓가에 맴돈다. 고개 들어 바라보는 남쪽 바다는 물비늘로 고옴다. 보드레한 물빛! 아침 햇살을 건져 올린 물비늘엔 아련한 기억 너머의 따스함이 있다. 빼꼼 고개를 내민 갯바위도 온기를 나누니. 지나가던 갈매기 한 마리 온기를 몰려다 나른다. 세상 시름 놓아버릴 고요한 충만의 순간! 한 눈 감고서 반짝이는 동쪽 물빛에 서다.





1



2



3

1 몽돌 해변 물비늘 2 장구섬 3 채송화

남쪽 구릉에 자리 잡은 대구마을에 들었다. 비좁은 비탈길-한가로운 돌담에는 여우팍이 덩굴로 모여 있다. 가을하늘-따가운 햇볕 아래 별처럼 빛나는 노란 꽃송이들! 금방 소풍나온 햇병아리 같다. 아장아장~ 고 귀여운 얼굴에 쪼르르 다가서니. 아무렇게나 쌓은 돌담 위로 파란 하늘이 빙긋이 웃는다. 그늘에 앉아 바다 건너 풍경을 바라본다. 남해 창선의 산들이 올망졸망 늘어섰다. 오른쪽으로는 빨간 삼천포대교가 띄엄띄엄 섬들을 절묘하게 이어놓고 있다. 나직한 파도 소리 귓가에 찰랑인다. 파란 하늘이 열리고, 선선한 갯바람에 가을이 달려온다.



방파제를 따라 신수마을 본동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상징의 빨간 공중전화통이 푸른 바다를 뻗어 쳐다본다. '시와 문학이 있는 섬 신수도' 이마에 달고 있는 글귀다. 방파제 벽에는 남녘의 바다를 읊은 시인들의 시가 짝옥~ 걸려있다. 삼천포초등학교 신수도 분교장에 들었다. 6개월 전 마지막 졸업생을 내보내며 폐교되었다는구나! 교정엔 몸뚱아리만 남은 높은 플라타너스 한 그루. 수피 한 조각에 살아남은 가지 몇 개. 슬픈 뒷모습이다. 하지만 여기 새겨볼 사연이 하나 있으니. 우보 박남조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 야학을 열어 주민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분교장 언저리에는 선생님의 시비(詩碑)가 서 있다. '시아섬 등 외소나무' 노산 앞 시아섬 등 / 홀로 늙는 외 소나무 // 한낮에 잠든 바다 / 낚시배도 조으는데 // 어디서 노래가락 / 외 소나무 쓰다듬고 // 이따금 / 썰물 스치며 / 갈매기는 날은다. 홀로 늙는 외 소나무는 거친 세상에 교육의 등불을 밝히신 당신이겠지요? 삼천포 선착장으로 되돌아 나오는 길목에 장구섬을 바라본다. 야트막한 봉우리 두 쪽이 마주 보며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데. 두들기면 금방 구슬픈 가락이 울려 퍼질 것만 같다. 긴장감은 거친 삶을 살아내는 힘이 되었을까? 아름다움의 정수를 뽑아내어 시와 문학의 섬이 되게 했을까? 신수마을 포구, 바닷물 찰랑이는 살림집 대문간에 붉은 웃음 웃는 채송화야~

길
이름
따라
떠나는
사천
이야기



통양1길 ~ 3길

현재 행정구역상 용현면 통양리는 선진공원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통양(通洋)은 바다로 통하는 마을이라고 하여 통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한다. 과거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에 따라 통양동, 조금동과 신촌동의 일부를 합하여 통양리로 되었다. 동국여지지(東國輿地誌) 사천현 고적조(古蹟條)에 의하면 “고려초에 설치한 고통양창(古通洋倉)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 1,200여 년 전 고려초 이전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통양마을 앞의 통양골, 간사지들, 조금, 숫골, 중방들, 신촌 일부가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그 흔적이 사라지고 없다.

도로명은 이러한 역사성의 의미를 담아 ‘통양1길부터 통양3길’까지 있다.

사천시에는 많은 도로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도로명마다 역사적 의미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천 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

名 區 名 樓

명 구 명 루

“이름난 구역에 이름난 누각”

명구명루(名區名樓)는 “이름난 구역에 이름난 누각”을 말한다. 우리나라 산천 곳곳의 이름난 명구(名區)에는 반드시 이름난 누각 명루(名樓)가 있다.

사천시 사천읍성의 일대에 위치한 수양산은 사천읍의 이름난 구역이다. 그러므로 그곳에 조성된 수양공원은 역사의 유적과 자연의 경관을 함께하고 있다. 수양공원 안에는 수양루(洙陽樓)라는 누각이 있다. 수양루는 ‘명구’에 있는 ‘명루’라 할 수 있다. 사천시와 인접해 있는 진주의 축석루(矗石樓), 조금 더 멀리 가면 밀양의 영남루(嶺南樓) 등은 명구에 있는 명루이다.

〈사천군지〉와 〈사천읍지〉를 참고해 보면 수양루는 본래 선인리 580-2번지에 세워져 있던 것인데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1919년 봄, 현재의 사천읍성 안에 있는 수양산으로 이전하였다고 한다. 〈신동국여지승람〉에 소개된 누정편에는 영화루(永和樓)와 제경루(霽景樓)의 기록만 보이고 수양루의 기록은 없다. 그렇다면 수양루의 처음 건립은 아마도 조선 후기에 건립되었거나 아니면 1919년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수양루의 안에는 근세 유생들이 지은 시를 새겨 놓은 시판(詩板)이 즐비하다. 그 중 오계(梧溪) 황무연(黃茂淵)이라는 분이 차운하여 읊은 시를 보면 이렇하다.

이름난 구역 이 땅에 이름난 누각 있으니,
 시냇가 나무들 들녘의 구름이 저물녘의 모래섬에 둘러 있네.
 사수 맑게 비쳐 달이 가까이 떠 있고,
 니산 우뚝이 개여 푸르스름한 람기 거두었네.
 녹음 짙고 고요한 난간에 거문고와 바둑돌 소리 울리고,
 지는 해 깊은 술잔에 귀밑머리 센 시름일세.
 천 그루 회나무 만 그루 소나무 푸른 빛 속에,
 이곳에 오르는 많은 선비들 맑은 놀이를 짓네.

名區此地有名樓
 溪樹郊雲繞晚洲
 泗水曠澄浮月近
 尼山靄屹碧嵐收
 綠陰軒靜琴碁響
 落日盃深鬢髮愁
 千檜萬松蒼翠裏
 登臨多士作清遊

우리 전통문화에서 정자나 누각의 풍류는 지식인들의 맑은 놀이 중 하나였다. 역사를 이야기하고 문학을 논하며 시대를 걱정하던 곳이었고, 고담준론과 음풍영월을 하면서 시대를 선도했던 현장이었음을 수양루에서 회상해 본다.

이 갑 규(李甲圭)
한국국학진흥원 교수·한학자





기부하Go! 혜택받Go! 내 고향도 살리Go!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기부 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천이 아닌,
사천시로 기부하고 싶은 누구나
※개인별 연간500만원 이내

기부 혜택

- 세액공제(10만원이하 전액, 초과분 16.5%)
- 답례품 제공(기부액의 30% 이내)

기부 방법

- 「고향사랑e음」온라인 접수
- NH농협은행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기부금 사용처

-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활용

☎ 사천시 행정과 대외협력팀 ☎055)831-2252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토리



인스타그램

